광주시·전남도 인사태풍 분다

U대회·F1 조직위 출범 앞두고 대규모 승진·전보 예상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2015하계유니버시아드와 F1대회 등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대규모 조직위가 꾸려질 예정이어서 체증을 빚고 있는 인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6일 출범할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는 100명 규모로 구성되며, 직제는 조직위원장, 별정직 사무총장(차관급·비상근), 사무차장(2급) 본부장(3급 국장급) 등으로 짜여질 예정이다.

특히 사무차장직이 2급으로 정해질 경우 광주시에서는 해당 직급 간부가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등 2명에서 3명으로 늘게돼 국장급 간부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승진 및 보직 인사가 오는 26일을 전후해 단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승진 수혜자가 크게 늘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난해 말 "1987년 광주직할시 승격 이후 최대 규모의 인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 공직사회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유니버시아드 조직위 구성 인원, 직제를 놓고 막바지 조율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인사규모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인사 폭은 상당히 클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도에서도 신설될 F1조직위원회 사무처에 30~40명의 직원이 파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규모 인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F1대회를 총괄할 조직위 사무처의 경우 중앙정부나 외부 기관에서 충원될 것으로 보이는 1급 사무총장 외에 실무를 총괄할 3급 사무처장을 비롯 4, 5급 자리가 대거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F1대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F1지원본부에도 3급 본부장 자리가 마련돼있어 도청 내 승진 예정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4일 조회에서 "F1 조직에는 도청 내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을 선발,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경쟁에 불을 지폈다.

전남도 관계자는 "F1조직위 사무처 파견인력의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주말까지는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는 도청 실·국장급과 과장급을 비롯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증현 장관 "희망근로·공공인턴 1월도 시행"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에 공백이 예상되던 희망근로와 공공인턴 등 정부 주도의 일자리사업을 1월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1, 2월의 고용대란과 관련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조치가 됐다"면서 "예산이 비록 지난해 12월31일 통과돼 늦어지긴 했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희망근로의 경우 지자체 특성에 맞춰서 1월부터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조치됐고 청년 인턴도 1월 초에 시행 가능하도록 내부 절차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이달 시행이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윤 장관은 "대통령 신년사에도 나왔듯이 정부 목표 첫 번째가 경제살리기로, 경제가 살아야 성장하고 복지지출 등 수요에 맞출 수 있다"면서 "과거 성장이 1% 되면 고용이 얼마나 느는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하는 추정 공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작동 안 된다"고 토로했다.

윤 장관은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싼 것이 아니지만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대학 자율화가 불가피하다"면서 "대학등록금 상한제는 대학자율화에도 맞지 않고 부동산 상한제와 맥락이 같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신종플루 2차 접종 4일 광주시 남구청 회의실에서 신종인플루엔자 2차 예방접종이 실시된 가운데 남구 지역 초등학생들이 겁먹은 표정으로 주사를 맞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시무식

박시장 "공직자 일로써 시민에 봉사"

박광태 광주시장은 4일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를 광주 발전의 영광과 도약의 해로 삼고 일로써 시민에게 봉사하자"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첨단산업 중심의 생산도시 건설 ▲글로벌 문화예술 창조도시 조성 ▲세계로 뻗어가는 국제도시 기반 구축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도시 조성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 ▲서남권을 선도하는 중추도시 건설 등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특히 R&D(연구·개발) 특구지정을 계기로 산업단지 확대 조성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국민적 조직위 구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지사 "전남 성장 동력 만들자"

박준영 전남지사는 4일 "우리가 전남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신념을 갖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100년, 200년 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장동력을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박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시무식 및 풍요로운 전남건설 다짐대회'를 갖고 올 한해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박 지사는 "올해 F1 대회가 처음 열리고,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세계해양·기상학총회 등의 성공적 개최 준비 및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유치 등에 총력을 기울여나가자"며 "특히 최근 몇 년간 투자유치 총력 추진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둬 미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열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올핸 또 얼마나 기어야 할지

공무원 수당 중복지급 엄격 제한

관련 규정 개정 … 계약직 보수기준 대폭 상향

올해부터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이 엄격해지는 등 수당체계가 투명·간소화되고 고위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기준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지방비 포함)에서 보조 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공무원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각 기관 급여담당자가 매월 한 차례 가족수당 수령자의 부양가족 변동 사항을 확인해 부당한 수령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도록 했다.

연구업무수당과 안전관리수당 등 28종에 달하는 특수업무수당은 지급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따라 11종으로 축소됐고,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도 위험도 등을 재분석해 84개 직무에서 45개 직무로 조정됐다.

/연합뉴스

감사원장 "지역토착 비리 감찰 강화"

김황식 감사원장은 4일 "올해는 후진국형 비리인 공금횡령, 금품수수뿐 아니라 지역토착 비리나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도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과 형식적.기계적인 업무처리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무사안일한 행태는 철저히 점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창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편익 증진과 예산절감에 기여한 모범공직자는 적극 발굴, 활기찬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또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점검하는데 감사 역량을 모으고 취약계층과 서민생활을 돌보는 감사를 통해 민생안정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예산낭비와 비효율은 없는지 등을 상시 점검하고 추진 과정의 애로를 해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품, 주택과 같은 국민의 기초생활에서부터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보육·교육 문제는 물론, 빈곤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활밀착형 감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本社人事

▲金柱正 : 편집국 정치부장
▲程厚植 : 편집국 경제부장
▲朴治炅 : 편집국 사회 1부장
▲高敬錫 : 편집국 사회 2부장
▲徐承源 : 편집국 체육부장 직무대리
▲魏稷良 : 선임기자·편집국 조사부장 직무대리 겸임
▲李相先 : 편집국 서부취재본부 목포주재 부장
▲崔勝烈 : 편집국 중부취재본부 나주주재 부장
▲崔鉉培 : 편집국 사진부 차장
▲尹炫晳 : 편집국 사회 1부 차장
▲崔權一 : 편집국 사회 2부 차장
▲尹英基 : 편집국 정치부 차장
▲朴鍾國 : 독자서비스국 발송부 차장
▲朴隣形 : 독자서비스국 판매부 차장
▲李尙烋 : 편집국 중부취재본부 영암주재 차장
▲朴永珍 : 편집국 동부취재본부 광양주재 차장 〈1월 5일자〉